



달빛 그림자 가게 3 - 갈대섬 검은 새의 비밀

글 김우수, 정은경 그림 박현주

크기 140*195mm 중량 328g 쪽수 168쪽 값 14,500원

펴낸날 2024년 5월 30일

펴낸곳 길벗스쿨 대상 어린이

ISBN 979-11-6406-757-2 (74810)

979-11-6406-533-2 (세트)

문의 나고은

(02-330-9894 / goeun120@gilbut.co.kr)

검색 키워드 어린이판타지, 그림자, 가게, 소원성취, 치유, 힐링, 판타지, 어린이, 초등, 아동문학, 동화

ISBN	도서명(상품명)	인증유형	주의사항	사용연령	제조일	제조국
9791164067572	달빛 그림자 가게 3 - 갈대섬 검은 새의 비밀	공급자적합성확인	없음	8세 이상	2024.5.30	대한민국

1. 간단 소개

★독자들의 강력 추천★

“9살 딸과 7살 아들, 엄마까지 셋이서 이야기에 푹 빠졌다.” _안*경

“아이가 순식간에 읽고 다음 권 타령. 글밥 읽는 책을 원한다면 추천한다.” _정*진

“추리 요소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스토리가 탄탄해서 후속권이 더 기대된다!” _김*혜

“성인 추리 소설 빠치는 이야기 전개에 깜짝 놀랐다.” _김*희

갈대섬에 수상한 새가 나타났다!

블랙홀처럼 까만 몸에 암량의 기운까지 느껴지는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슬아슬한 대결이 시작된다!

마법이 깃든 그림자로 그늘진 마음을 밝혀 주는 힐링 판타지 시리즈 「달빛 그림자 가게」 3 권이 출간되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싶은 손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손님의 사연은 요즘 어린이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어 공감을 자아낸다. 시원한 바람을 내뿜는 자작나무 그림자, 어떤 말을 하든 상대방이 귀 기울이게 해 주는 메가폰 그림자까지 신비로운 그림자를 가져간 손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번 권에는 수상한 검은 새를 찾기 위해 갈대섬으로 떠난 재오와 친구들의 모험도 그려진다. 갈대섬에서 재오 일행은 검은 새 때에게 공격당하고, 무시무시한 암량과 맞닥뜨리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베일에 싸여 있던 암량의 정체가 드러나고, 짜릿한 액션까지 더해져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책의 특징

■ 달빛 그림자 가게는 오늘도 영업 중

신비로운 그림자로 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힐링 판타지 동화 「달빛 그림자 가게」가 3권으로 돌아왔다. 햇무리 마을 좁은 골목에 위치한 달빛 그림자 가게에서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어울리는 그림자를 추천해 준다. 언니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손님,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고 싶은 손님,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는 손님 등 1, 2권에 등장한 손님들의 사연은 많은 어린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3권에서는 시원한 곳에서 밤새 게임만 하고 싶은 기영이 아저씨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가은이의 사연이 등장한다. 달빛 그림자 가게에 찾아온 새로운 손님들은 어떤 그림자를 손에 넣게 될까?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에피소드들을 담았다.

■ 갈대섬에서 펼쳐지는 암랑과의 대결

이 시리즈는 신비로운 그림자를 파는 사연뿐만 아니라 사라진 동생을 찾는 재오의 이야기, 빛의 구슬을 훔친 암랑을 쫓는 빛의 수호자들의 이야기까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2권에서 재오 일행은 동생 재이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지만, 갑자기 나타난 암랑 때문에 눈앞에서 재이와 암랑을 모두 놓치고 만다. 3권에서도 재이와 암랑에 대한 추적은 계속된다. 재이가 그림자로 변했고 암랑이 재이를 쫓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지만, 암랑이 뿜어내는 어둠의 기운도 강해지고 있어서 서둘러 동생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갈대섬 황참새'라는 채널에서 수상한 검은 새가 찍힌 영상을 발견한다. 재오와 친구들은 영상 속 검은 새가 암랑이 만든 그림자라고 추측하고 갈대섬으로 향한다. 갈대섬에서 재오와 세희는 황참새의 도움으로 새들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한 뒤 탐조 활동을 시작한다. 검은 새를 쫓아간 끝에 마침내 암랑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빛의 수호자 흥, 청, 록은 더 강력해진 암랑을 무찌를 수 있을까? 인간 세계에서 암랑과 흥, 청, 록의 첫 대결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

■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나'를 드러내는 시간

그림자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환한 빛 뒤에 가려져서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두고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인공 재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림자 같은 아이였다. 학교에서 민재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다. 그런데 달빛 그림자 가게에서 일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이를 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은 재오를 더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했다. 자신을 응원해 주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암랑이라는 두려운 존재에게 맞서면서 눈에 띄게 성장한다. 그 덕분에 재오는 이제 민재의 괴롭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 민재 앞에 나서서 그만하라고 외치는 재오를 보고, 같은 반 친구 가은이는 재오처럼 용감해지고 싶다는 꿈을 꾸다. 그림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재오의 모습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 기발한 상상력으로 빚어 낸 힐링 판타지 동화

「달빛 그림자 가게」는 그림자에 숨결을 불어넣어 '몰래 자른 그림자를 수집할 수 있다면?'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이야기다. 스스로 움직이고 알록달록한 빛깔을 내는 그림자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깨고 판타지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 이 시리즈는 CJ문화재단에서 이야기꾼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모 '프로젝트S'의 애니메이션 부문으로 선정된 이야기를 원저작자 김우수와 동화 작가 정은경이 함께 동화로 다듬은 작품이다. 그림자를 사고판다는 흥미로운 설정과 함께 개성 있고 입체적인 캐릭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세계관으로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 폭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3. 책 속 문장

그림자 새들은 암랑의 분신이 되어 암랑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그림자 새가 보고 듣는 것은 암랑도 느낄 수 있었다. 암랑이 그림자 새들에게 말했다.

“그림자 소녀 재이를 찾아라.”

“까악 까악 끼르르르.”

그림자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며 흩어졌다. (14쪽)

기영은 거실에서 본 것처럼 유리병 앞에 전기 초를 켜 놓고 벽에 나무 그림자가 생기게 했다. 곧 나뭇가지가 사사삭 소리를 내며 흔들리더니 숲 향기가 가득한 바람을 뿜어냈다. 어느새 방에서 났던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청량한 향기가 풍겼다.

“오! 공기 청정 기능까지 있네!”

기영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게임이 잘될 것 같았다. 신이 난 기영은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34쪽)

“이상한 그림자를 찾았어! 이 영상 좀 봐. ‘갈대섬 황참새’라는 채널인데 그림자처럼 보이는 새가 나와.”

재오와 세희, 그림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갈대섬의 새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수 넌 이 새가 그림자 같다는 거지?”

재오가 휴대폰 속으로 들어갈 듯이 화면을 확대해 보며 물었다. (73쪽)

가은이는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했다.

‘보라가 뭘 샀길래 소원이 이뤄졌는지 물어볼까? 나도 보라처럼 인기 있고 싶어. 다들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재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 가은이가 아무 말도 못 하자 한결이가 꺾속말을 했다. (130쪽)

4. 목차

달빛 그림자 극장 6쪽

일곱 번째 그림자: 바람 솔솔 자작나무

1. 암랑의 부하 12쪽
2. 자두 할머니 16쪽
3. 기영이 아저씨의 욕심 27쪽
4. 으스스스 냉방병 40쪽
5. 달라진 기영이 아저씨 53쪽

여덟 번째 그림자: 암랑의 털

1. 재이의 행방 60쪽
2. 갈대섬 황참새 70쪽
3. 탐조 활동 85쪽
4. 암랑의 공격 93쪽
5. 첫 인터뷰 108쪽

아홉 번째 그림자: 천만 영화 감독의 메가폰

1. 민재의 분노 116쪽

- 2. 가은이의 고민 123쪽
- 3. 인기 있어지는 법 137쪽
- 4. 친구 삭제 146쪽
- 5. 진짜 친구 155쪽

뒷이야기 164쪽
 홍청록의 일상 툰 166쪽

5. 줄거리

달빛 그림자 가게에 여름이 찾아왔다. 가게에서는 무더위를 날려 줄 자작나무 그림자를 빼앗겨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친구들의 인기를 얻고 싶던 가은이는 메가폰 그림자를 사 가면서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지만, 단짝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다. 한편 암랑의 흔적을 찾던 재오와 친구들은 갈대섬에서 암랑의 부하로 보이는 수상한 검은 새 무리를 발견한다. 검은 새들을 따라간 곳에서 나타난 정체는 검은 늑대 암랑! 빛의 수호자들은 암랑과 아슬아슬한 첫 대결을 펼친다.

6. 작가 소개

김우수 글

서양화를 전공하고 다수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달빛 그림자 가게」 시리즈는 2012년 CJ문화재단 프로젝트S 공모 3기 애니메이션 부문으로 뽑힌 이야기를 정은경 작가님과 동화로 다시 쓴 작품입니다.

정은경 글

디자인을 전공한 뒤 애니메이션 각본, 웹툰 스토리, 어린이청소년문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열세 개의 바다: 바리』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을 받았고, 동화 『질투 애벌레』, 청소년 소설 「크리처스」 시리즈(공저) 등을 펴냈습니다.

박현주 그림

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했고 졸업 후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나 때문에』 『비밀이야』 『이까짓 거!』가 있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 봐』 『스으읍 스읍 잠 먹는 귀신』 『우리 반 어떤 애』 『지퍼백 아이』 『우리 반 싸움 대장』 『내 꿈은 조퇴』 등의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7. 추천글

“어린이의 크고 작은 상처를 다루면서 그림자 속에 더 큰 모험의 실마리를 감춰 놓은 책.”
 _허교범(「스무고개 탐정」 작가)

“폭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다.
 영상과 학습 만화에 익숙한 친구들도 텍스트 읽기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책!”
 _이은경(유튜브 ‘슬기로운초등생활’ 운영, 자녀교육전문가, 전 초등 교사)